



18대 노조출범-합리적 견제와 균형의 한 해로

내달 8일 제1차 대의원 대회 개최

노동조합은 내달 8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제 1차 정기대의원 대회를 갖고 금년도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노조는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비롯한 금년도 회사의 현안에 대한 노조 차원의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대 노조는 지난 2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각 지부장, 장영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노조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구 집행부 이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정재용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노와 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연합뉴스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존재”라면서 “노와 사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알력을 보이면 수레는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궤도를 이탈하거나 넘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 사장 추천권, 경영감독 및 예결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면서 “뉴스통신진흥회가 조속히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7일과 15

일, 21일 세 차례의 집행부 회의를 통해 뉴스통신진흥회 구성과 사장공모제 제도화 문제를 금년도 주요 사업목표로 설정,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003년 4월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연합뉴스를 국가 기간통신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됐으나 이 법에 따라 구성됐어야 할 뉴스통신진흥회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통신진흥법 제 4장에는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진흥회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돼있으며,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노조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올해부터 노사공동으로 연구하기



지난 2일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8대 노조출범식에서 정재용 위원장(오른쪽)이 류일형 전임위원장으로 부터 노조깃발을 인수받고 있다.

로 회사측과 합의한 임금피크제 문제도 중요 과제로 선정, 공동연구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조만간 회사측이 단행키로 한 조직개편이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 제고라는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뉴스 콘

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장 사장은 지난달 28일 노조 신·구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멀티미디어 통신사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조 인사고과제 의견 수렴키로-대의원대회서도 논의

노조는 회사가 최근 시범실시한 인사고과제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현행 인사평가방식에 대

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회사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21일 열린 집행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데 이어, 4월 8일로 예정된 18대 노조 첫 대의원 대회에서도 인사고과제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주영 조합원(국제뉴스부)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부장급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고 A데스크를 중심으로 근무가 편성되는 국제뉴스국의 특성상 인사평가(상향식) 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소신있는 평가가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노조 집행부의 자체 조사결과 국제뉴스국 이외에도 정보통신국, 정보사업국 등 일부 부서 조합원들도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인사고과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면 하단에 계속

노보만평



勞告

●노보는 이번달 제170호부터 새로운 제호와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께 월간으로 발간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및 사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노보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나 알고 싶은 이야기·고충 등을 보다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내달부터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만·격려 등을 터놓고 말하는 <조합원 단상>, 지방조합원들의 자량이나 고충을 토로하는 <지방조합원 발언대>, 조합원들의 독특한 취미생활이나 소개하고 싶은 여행지·건강정보 등을 자랑하는 <소개합니다>, 취재 혹은 영업 현장에서의 뒷이야기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의 활약상을 담은 <최전선에서..> 등을 신설·연재하려하니 많은 원고 제출 바랍니다. 현장의 사진이나 그래픽이 첨부된 원고라면 대환영입니다. 참고로 소정의 원고료도 있습니다.

노설

조직개편에 바란다

회사의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노조원 및 직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사내에선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정보'나 '설(說)'로 흘러다니고 있다.

금년 들어 조직개편 문제는 장영섭 사장이 신년사와 신년인터뷰를 통해 구상을 밝히면서 표면화됐다. 장 사장은 신년사에서 "조직의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살아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놓고 경영진이 고민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사장은 이어 1월 19일 사보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 기중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며 조직개편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장 사장은 지난달 28일 신·구 노조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회사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신문산업의 침체 등으로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다 국가통신사 지정으로 연합뉴스의 위상이 변한 만큼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조직의 재정비는 필연적일 수 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이미 사내에 상당 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조직개편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개인별, 부서별, 국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회사의 장래는 물론 개인의 처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ban

그러나 조직개편은 이처럼 노조원들과 회사 직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데다 사안의 성격상 '노사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에선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조는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노조가 경영진에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명분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와 회사의 발전이 조직개편의 목표라면 그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행여 조직개편이 개인별, 부서별, 국별 이해관계에 매몰돼 무원칙적으로, 혹은 '짜집기식'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의 위상과 기능,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03년 4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에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질 때 대외적인 명분과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다.

경영진은 뉴스통신진흥법에 규정된 '정보주권 수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연합뉴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것이다.

경영진은 최소한 10년 후 연합뉴스의 장래와 직원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

경조비, 경조휴가 잘 알고 계십니까?

노조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 및 경조휴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꼼꼼히 챙기지 못해 뒤늦은 후회(?)를 하는 조합원 및 직원들이 많아 이 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표 참조>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부친상·모친상 등의 경조사처럼 사내에 <알림>을 통해 게시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고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노조나 회사에서 일일이 경조비를 지급하지만 부모회갑, 배우자 부모회갑 등의 경우처럼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노조나

회사에 따로 고지를 해야 경조비를 지급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회갑이나 부모칠순, 배우자 부모칠순, 형제·자매의 상, 배우자 형제·자매의 상 등의 경조사시 회사에서는 따로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노조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경조비를 지급하니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경조휴가의 경우에도 경조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단체협약상 경조휴가가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 가족내 대소사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경조휴가	
본인 결혼	7일
배우자 사망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승중순은 조부모) 사망	7일
형제자매 및 자녀 사망	5일
배우자 출산	2일
자녀 결혼	1일 (지방은 2일까지 가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
배우자 탈상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탈상	1일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2일 (")
백숙모 사망(다만 배우자 백숙부모는 1일)	3일
외조부모 사망	2일
손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사망	3일
동거친족 사망	1일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 배우자 사망	2일
형제자매의 자녀 및 배우자 사망	2일
자녀의 배우자 사망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순생일	1일

경조비				
구분	조합	회사	사우회	
축의금	본인 결혼	10만원	50만원	20만원
	자녀 결혼	10만원	20만원	10만원
	부모 회갑	10만원	20만원	10만원
	배우자 부모 회갑	10만원	-	-
	부모 칠순	10만원	-	-
	배우자 부모 칠순	10만원	-	-
	출산 (본인, 배우자)	꽃바구니(5만원 상당)	10만원	-
	배우자	20만원	50만원	30만원
	부모	20만원	50만원	20만원
	자녀	10만원	30만원	10만원
조의금	배우자 부모	20만원	50만원	-
	승중상	10만원	30만원	20만원
	형제·자매	10만원	-	-
	배우자 형제·자매	10만원	-	-
위로금	본인 입원	10만원 (2주 이상)	10만원 (7일 이상) 20만원 (15일 이상)	15만원 (수술로 7일이상 입원시)

● 이달의 참글상

2월 수상작 없어

아쉽게도 2월분 '이달의 참글상'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2월)에도 조합원들이 발로 뛰어 생산한 노작들이 많았는데도 말이다. 누구 탓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공보위의 입장에선 가능한 많은 작품을 '참글상'으로 선정하고 싶지만 '추천'되지 않은 기사를 수상작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기사라도 최소한의 '통과의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달부터 각 부서 소속 공보위원들께선 민감한 후각을 발휘해 좋은 기사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

'차천'이라는 방법도 있다. 지나친 겸손은 '시장경제의 적'이자 언론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다들 용기를 내 참글상에 도전하자.

3월분 기사에 대해선 추천작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보위와 노조도 많은 조합원들에게 수상의 기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놓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참고로 '이달의 참글상' 수상자들에게엔 상패와 함께 대상 50만원, 격려상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



조합원 단상

“1만7천80원의 친밀감”

지난 주말 충북 진천군의 공무원노조가 조합비를 자동이체로 일괄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쓰다가 문득 우린 노조회비를 얼마나 내나 궁금해졌다. 급여명세서를 검색해보니 1만7천80원이다(지금 생각해보니 입사했을 때 어떤 선배가 노조비 2천원이라고 했는데 속았다).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 만나서 배채우고 수다떨면서 친밀함을 쌓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은 돈이다.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만큼의 노조비로 나는 노조와 얼마나 친밀한지 생각해볼게 된다.

‘원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친밀해진다’. ‘평

소엔 절대 떠올리지 말다가도 어려울 땐 기억하라’는 어떤 신용대출 회사의 광고처럼, 노조는 평소엔 떠올리지 않다가도 회사에 무언가를 원하게 될 때 금세 떠오르는 곳이었으면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길 때는 물론 여럿이서 원하는 것이 생길 때는 더더욱.

이 글을 쓰면서 동기들에게 ‘노조비 2천원 아니래!’라고 말했더니 다들 속았다는 반응이었다. 2천원이라고 속인 선배가 누구였는지 기억을 해집고 있다.



백나리 충북지사

조합 소식

●노조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신세계 이마트 상품권·5만원권)을 일괄 지급했다. 여러 노조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상품권이 가장 무난하다는 평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선물로 선정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기금 대출조건을 일부 조정했다. 집행부 회의를 통해 대출금리는 현행과 같이 4%로 유지하되 주택매매·전세자금, 노조원 가족의료비 등 긴급자금 필요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매달 2명까지 최고 500만원(현행 3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의결했다. 또 500만원 대출시에는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기간을 최고 15개월(현행 10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의 활동내용을 담은 ‘제17대 노동조합 활동보고서’를 발간해 조합원들에게 각 1부씩 배부했다. 총 270여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에는 위 기간동안 노조가 발표하거나 펴낸 성명서·토론회 자료집·노사협의회 내용·

노보 등을 꼼꼼히 수록하고 있다.

●노조의 제안으로 회사는 신한은행(종로지점) 및 서울보증보험(남대문지점)과 연계해 사원들에 대해 퇴직금 담보 및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저금리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출조건은 1년이상 재직사원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이며 이율은 은행이율에 보증보험 포함, 연 6.52%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원은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지참, 노조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지방사원은 신한은행 지점에서 소정양식만 작성해 신청).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며 만기이전 원금 상환시 미경과 보증보험료는 반환받으며 상환수수료는 없다. 매3년 단위로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조합 탈퇴

진정영 강원지사장(2월 28일)
김진희 충북지사장(2월 24일)
이병로 국제뉴스부장(3월 2일)
장윤주 특신부장(3월 2일)
김용수 통일외교부장(3월 2일)

● 알려드립니다

노조 홈페이지 개선안 마련

노조는 노조홈페이지(www.newsunion.co.kr) 개선작업을 본격추진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는 시각성이 떨어지는데다 보안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조합원들의 활용도가 낮은게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그동안 노조 소식 등을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노조는 17대 집행부 때부터 제기되온 노조 홈페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전산부와 협의 등을 거쳐 사내 정보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SDS측의 협

조를 구하는데 성공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삼성SDS측 실무관계자들을 만나 노조 홈페이지 디자인을 간결하고 시각적이며 보안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이면 새로 단장된 홈페이지를 보게 될 것이다. 노조는 홈페이지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노조와 조합원간 연결통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애정을 보내 주시고 홈페이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달의 조합활동

●3월2일: 제18대 노조 출범식이 본사 1층 로비에서 이수호 민노총위원장,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및 각 지부 위원장, 회사 경영진을 비롯한 40여명의 내빈 및 1백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열려...

신임 정위원장은 물론 내외빈들이 축사나 연대사를 통해 한결같이 급변하는 언론환경속에서 연합뉴스 노조의 역할 및 기대에 대해 일갈해 ‘급변’이 하나의 코드(?)가 된 듯...

●3월7일: 18대 노조 첫 집행부회의가 노조사무실에서 개최됐는데 제주지사에서 날아온 김호천 부위원장 이하 전 집행부가 참석해 기분좋은 출발...

정위원장은 뒷풀이에서 “오늘 회의의 헤드라인은 100% 참석”이라며 계속 함박웃음...



●3월10일: 정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열린 <언론노조 전임자 교육>에 참석...

교육을 다녀온 위원장은 “노조에 발디딘 것도 큰 변화인데 전임자 교육은 또 하나의 큰 변화”라며 대외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3월11일: 애초 구성된 집행부에 이어 대의원 및 지배구조특위 위원, 공보위원등이 모두 확정돼 제18대 노조의 조직이 명실상부하게 완료...

이제는 쏟아부를 열성과 365일 일할 날들만이 과제...

●3월15일: 두번째 집행부회의를 열어 노조 창립기념일을 자축하고 연합노보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

새로운 제호와 레이아웃 성안 작업을 주도한 반종빈 조사부장은 “노조원들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며 작업하다보니 두려운 마음이 항상 앞선다”며 노심초사...

●3월15일: 노조가 탄생한지 만 17년이 되는 날...

80여명의 노조원 및 사내 경영진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축사·생일잔치·뷔페식사 등의 순서로 기념식 진행. 정일웅 10대 노조 위원장이 건배사에서 말한 것처럼 ‘쌍팔년’에 태어난 노조가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3월16일: 집행부 그리고 전임 노조간부들이 사내 경영진과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공식적인 첫 노사 상견례...

인사와 격려사 술잔이 돌고도는 가운데 장사장은 “오늘 술맛이 너무 당기지만 내일 아침 있을 광고주 초청 설명회를 생각하니 술을 자제할 수 밖에 없어 아쉽지만 하다”며 미리 준비해온 포도주로만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도...

●3월17일: 정위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마산 경남신문사에서 열린 언론노조내 신문통신대표자회의에 참석...

신문법 시행령 제정문제, 지방신문 활성화 및 포털·무료지문제 등에 대해 집중논의...

●3월21일: 세번째 집행부회의를 연뒤 회사 인근 식당으로 역대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함...

다섯분의 역대 노조위원장과 몇몇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만찬에서 2대 위원장을 역임한 김태웅국장은 “지난 17년간 쌓인 연륜이 어려울 때일수록 진가를 발휘될 것으로 믿는다”며 건배를 제의...



취임사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노조가 앞장설 것”

정재용
제18대 노조위원장



(인사 생략)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연합뉴스는 지난 1980년 창사 이래 ‘대한민국 언론의 향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스 도매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뉴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충실한 감시자’ 역할을 해 온 연합뉴스 노조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노조는 과거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인 1988년 3월, 첫 발을 내딛은 이래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회사의 발전은 물론 한국 언론계 발전을 위해 무시 못할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연합뉴스 노조의 빛나는 전통을 잇는 18대 집행부를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연합뉴스 선배들과 노조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정치, 사회, 경제, 국제관계 등 대내외적으로 거센 변화의 파도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쌍방향 디지털 미디어 출현 등으로 요약되는 언론환경의 변화는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간의 무한경쟁을 촉발하고 결국에는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언론계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화될 위성DMB 사업은 언론계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문, 방송 등 각 언론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개편, 구조조정, 사업다각화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선도해야 할 숙명적 사명을 안고 있는 연합뉴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은 ‘멀티미디어 통신사’ 육성을 목표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우리시대의 숙명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변화와 혁신의 파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노와 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연합뉴스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존재입니다. 노와 사가 힘을 모아 힘차게 그리고 조화롭게 바퀴를 굴러나갈 때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언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언론사’의 위치를 넘어 AP, 로이터, 교토통신, 신화사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속의 언론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물론 노사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사사건건 알력을 드러내면 수레는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궤도를 이탈하거나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노조위원장 출마의 변에서 밝힌 대로 회사측에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과감하게 견제할 것입니다.

회사가 연합뉴스 발전을 위해 좌표를 올바르게 잡고 전진하려 할 경우 노조는 아낌없이 힘을 보탬 것입니다.

물론 변화의 과정 속에서 노조원들의 삶의 질이 희생되지 않도록 감시·견

제하는 역할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8대 집행부는 노조원들의 뜻을 모아 회사측에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때로는 회사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측도 연합뉴스 직원들의 유일한 대표기구인 노조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피하지 말고 이같은 노사간 대화를 회사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노조원 여러분.

18대 집행부는 역대 어느 집행부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임 류일형 집행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은 뉴스통신진흥회 발족과 사장공모제의 제도와 문제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2003년 4월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연합뉴스를 국가 기간뉴스통신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뉴스통신진흥법’이 통과됐으나, 이 법에 따라 응당 설립됐어야 할 뉴스통신진흥회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사장후보 추천권, 경영감독 및 예·결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뉴스통신진흥회가 조속히, 그리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는 노사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회사측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문제도 18대 집행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임 집행부는 지난해 회사측과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18대 집행부는 향후 공동연구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험실시중인 신 인사고과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조는 경영진이 상반기중 노조와 협의를 거쳐 단행기로 한 조직개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통신사’로의 도약을 염두에 둔 이번 조직개편이 연합뉴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노조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조직개편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도입한 주5일제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원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발굴해 적극 회사측에 알리고 관철시킬 것입니다.

노조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라도 저의 집행부를 찾아와 조언과 쓴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칠 을유년 한해가 연합뉴스에겐 혁신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합시다.

2005년 3월 2일

1면에 이어

정보통신국의 한 조합원은 “평가 항목이 너무 추상적인데다 업무능력 보단 인간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치중돼 있다”며 “한번 평가를 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고과제 시행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

며 그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부서나 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국의 한 조합원도 “예(yes), 아니오(no)로만 선택할 수 있고 중간 점수가 생략된 현행 방식으로 과연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평가척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향후 인사고과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합원 상대 설문조사, 타 언론사에 대한 벤치마킹,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뒤 회사측에 전달할 방침이다.